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청신호'

타당성 용역 국비 1억원 확보
시민도예대학 등 주변 확대
각국 도예기법 교류 활성화 노력



남원 함파우 도자전시관 조감도

남원시가 추진하는 '도자전시관' 건립사업이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며 청신호가 켜졌다.

남원시는 민선 8기 핵심공약사업인 '함파우아트밸리' 내 주요 도입시설로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국비 1억원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예산이 타당성 용역예산이지만 사실상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예산이라는 점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해석된다.

이번 도자전시관 건립사업을 위한 국비 1억원의 예산 확보는 시가 관련 부처를 수시 방문해 도자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건의한 성과이자 남원시·전북도·국회(이용호 의원)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남원도자기의 뿌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사쓰마 도자기'를 만들어 낸 조선 도공 심당길의 후손 '심수관(12-15대)'(家)와 지난 8월 우호·협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중국 경덕시를 실무협약의 일환으로 내년 춘향제 때 한·중·일(한국 남원시, 중국 경덕진시, 일본 히요키시) 만남의 장을 마련, 도자 문화에 대한 교류뿐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까지 독특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도 매년 시민도예대학, 국제도예캠프 등을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예기법 교류

및 도예인구 저변화 등 남원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도자전시관은 총 17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2100㎡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내부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휴게공간 등으로 예정이다.

전시관 내에는 430여년의 심수관의 얼이 담긴 심수관의 도자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세계적 도예가의 도자 작품 및 신진 작가의 작품 등 세계도자문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함파우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제2관, 키즈아트랜드, 옷칠공예전시관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용역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함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기재부와 문체부를 오가며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자만을 연구 활용하는 전문적인 전시시설이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원시를 명실공히 도자 문화 중심지로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며 "도자전시관 건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내년 장애인 돌봄안전망 강화

복지 예산 36억 증액...전동보장구 충전기 추가 설치 등

정읍시가 내년 장애인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복지 확충에 나선다. 정읍시는 2024년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 308억 7000여만원 보다 약 36억원 증액해 344억 8600여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기반 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에 안정성을 더하고 더욱 촘촘한 장애인복지를 증진해 나가겠다는 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는 2450만원을 들여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7대(공공기관 6개소, 공공이용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또 864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해 7세 미만 장애아동 중 치료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은 아동 80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중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200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으로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2억 4700만원)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장애인 복지 시설과 단체 기능보강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유해 야생동물 2048마리 포획

농작물 피해농가 1억원 지원금

정읍시가 올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2048마리를 포획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읍시는 올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과 더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생해주는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집입을 차단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

업' 등을 추진했다. 고라니 1626마리, 멧돼지 422마리를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190농가에 1억210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52 농가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했다.

시는 내년도에도 유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근 선발된 단원 33명을 대상으로 정읍경찰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4년 연속 지적재조사 최우수기관

필지수 줄여 7000만원 예산 절감

남원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추진 사항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남원시는 전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기초지자체단체 최초로 4년 연속 국토교통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원시는 최근 5년간 전북 1위, 전국 2위 규모

인 55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해 2024년까지 25개 지구, 104개 마을, 2만8395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마을이 사업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국공유지 합병을 통해 필지 수를 줄여 7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또 운봉읍 매오마을 농어촌취약지역 개조사업 협업,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완료와 더불어 전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운봉읍내지구에 이어 황족지구가 2년 연속 추가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 30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우수공무원 7명에 인센티브

고창군이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군민 체감 적극 행정 성과를 창출한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7명을 선발했다.

고창군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9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실무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은석 흥덕면 부면장은 공사방식의 변경을 통해 배수흐름을 분산시켜 상습침수 지역의 피해발생을 감소시키고 주민간의 갈등까지 해결했다. 우수상에는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원석 주무관, 사회복지과 이라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특히 이라영 주무관은 전북 최초 사회복지조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사회복지조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까지 반영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 외에도 보건소 박진용 주무관, 농업정책과 김유진 주무관, 안전총괄과 강진오 주무관, 김인철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국내·외 교육 우선 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최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S)을 부여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내년부터 무료 이용

게임기·노래방·이벤트실 등 갖춰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 지원도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를 찾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내년부터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입장료를 폐지, 전면 무료개방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개관한 청소년문화센터는 고창군이 설치하고 쌍백합청소년육성회가 위탁·운영하는 시설로 쾌적한 시설 유지를 위해 유료가 바람직하다는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1일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왔다.

펍, 에어하키 등 14대의 게임기와, 당구장과 포켓볼장, 노래방, 이벤트실, 마루마루쉼터, 보드게임장 등을 갖춘 이곳은 연간 1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제11회 청소년문화축제'를 비롯해 풋살대회, 어울림마당, 보드게임 대회,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지원사업

도 펼쳐진다. 입장료가 폐지되는 내년부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문화센

터를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를 폐지하고 운영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며 "2024년부터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설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